대학생 학습방식에 대한 고찰*

–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김순임 · 민춘기**

– 목차 –

Ⅰ. 머리말
Ⅱ. 봉사학습
Ⅲ. 경험학습
Ⅳ. 협력학습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해결할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대에, 고등교육에서는 일상화된 기존의 텍스트 중심 학습과 더불어 체험이 가능한 학습방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외 대학에서 개발 ·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남대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연구 자료들을 고찰하였으며, 봉사학습 · 경험학습 · 협력학습 등으로 분류해 보았다. 현대 사회는 봉사 정신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PHS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내용 을 일부 고쳐서 작성함.
** 김순임(독일언어문학과 교수) · 민춘기(자율전공학부 초빙교원)

를 학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 효과의 한계는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공동체를 이해하고 상호 공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협력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학습방식들은 각기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되기도 한다. 현대 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 융합형 학습을 위해 이 방식들은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텍스트 중심의 학습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인문학 교육에서 경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학습방식, 체험학습, 봉사학습, 경험학습, 협력학습

Ⅰ. 머리말

다양한 변화의 환경 안에서 학생들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일상화된 기존의 텍스트 중심 학습에 또 다른 학습 방식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보완이 요구되는 학습방식의 하나로 체험학습을 들고자한다. 텍스트 위주의 학습 방식은 현행 교과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각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세계에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1] 국내외 대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방식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수학생 프로그램(Honors Students Program)의 각종 교육 내용을 들 수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도 이를 변형하거나 차

1) 손동현 2010, 21 참조.

용하여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등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는 텍스트 중심 학습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과 도달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학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남대학교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최근에 조명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연구 자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근래에 국내외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봉사와 학습의 연계, 경험을 통한 학습,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력 학습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는 텍스트 중심의 학습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인문학 교육에서 경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봉사학습

전남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습방식으로 봉사학습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교육이념 중의 하나인 '봉사'가 중요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그 주변 사회에 대한 봉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사학습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라든가 일회성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그 교육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2] 학습화된 봉사란 이론적인 학습을 거친 후 이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일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대학과사회봉사'라는 과목이 교양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2011학년도 1학기의 경우 13개 분반을 개설하고 있다. 각 분반의 강의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특정 기관을 방문하여 비교적 단순한 지원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의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는 기부 성격의 봉사나 활동이며, 대중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고, 법원이나 학교 등의 명령이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청소년 봉사 시간이나 봉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을 위해 일정 시간의 지역봉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봉사를 학습과 연계시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3]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학습은 학습목표와 의도적으로 연결된다.[4]

봉사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 기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질의 봉사 및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는 많은 경우 지역봉사를 입학을 위한 비공식적인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대학은 지역봉사를 통한 경험학습을 선호하여 졸업을 위해 특정 시간의 지역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한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들은 지역봉사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도 하고, 자원봉사 경험 여부를 고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경희대 영예학생 프로그램에서는 이른바 '사회공헌 실천 프로젝트'라는 세부 프로그램 안에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5] 이 대학에서는 영예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기 중에 소속된 캠퍼스 교내봉사단(경희봉사단, 경희사회봉사단)에서 봉사단원들과 함께 기획 및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전남대의 경우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3) Powell 2008, 97 참조.
4) http://en.wikipedia.org/wiki/Service-learning 참조.
5) http://honor.khu.ac.kr 참조.

봉사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대학과 지역의 공조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대학에서도 ILOP(Intensified Learning Opportunity Programme) 프로그램에 '봉사학습 및 자원봉사'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6] 이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오늘날의 다양한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인간 상황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목표 아래 봉사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NGO와의 파트너십이나 봉사훈련 워크숍 시리즈를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고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과정의 노출과 경험에서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동료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촉진함으로써 캠퍼스의 봉사문화를 주도하여 사회로 확산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발 과정에서 비교과 활동의 영역과 질, 공동체 봉사, 사회 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 Trinity Christian College[7]에서는 봉사학습을 우수학생 프로그램의 일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 서비스 공헌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봉사 담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8] 이 대학에서는 매년 범교과 봉사학습 과목을 신청 받아 심사 후 개설한다. 수강생들은 자기소개, 이전 봉사 경험 반성, 자신의 인생관 확인의 과정을 마친 후, 교재[9]를 이용한 수업을 받고 봉사학습 관련 논문을 읽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

6) http://w3.cedars.hku.hk/ilop/ programmes_ schedules.php 참조.

7) 일리노이 주 Palos Heights 소재의 교양학부대학 (liberal arts college).

8) 이하 Powell 2008, 97-109 참조.

9) 예를 들어, *Learning through Serving: A Student Guidebook for Service-Learning across the Disciplines*(학습과 봉사의 본질적 요소들의 분석, 다양한 설문지와 반성활동,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파트너와의 관계 이해, 사회 변화의 본성과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학술적 탐구활동과 탐구 문제, 봉사학습 경험으로부터 이해하고 배우도록 돕도록 설계된 연습들 제공) 혹은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봉사학습 분야에 중요한 정의, 일반적인 학습에 관한 데이터, 학습 성과와 관련된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제공된다. 봉사학습 관련 학습의 태도와 인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룬 이론적인 서적) 등을 들 수 있다.

– 학기 시작: 집중 교육(봉사학습의 역사, 교육학, 실천; 관련 어휘, 지역봉사 · 자원봉사 · 현장봉사 · 봉사학습 사이의 차이 심층 탐구; 봉사학습 이론과 실습의 기본사항에 노출되고 이 영역들의 광범위한 독서와 저널 만들기)[10]

– 가능한 기관 명단과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표 (전공과 개인 열정 연계)

– 활동 시작: 봉사학습 프로젝트의 초안 작성(지역 파트너 기관 이름, 파트너 기관의 수요 평가, 수요 충족을 위한 가능한 전략; 팀 구성)

– 봉사학습 프로젝트 일지: 목표와 세부목표, 파트너 기관의 수요 정의와 평가, 수요 충족 위해 가능한 전략 정의, 시간 계획, 예산 소요 견적, 잠재적인 문제 평가

– 연구: 관심 영역, 지역 파트너 기관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문헌 검토

– 면담: 학기 중 몇 차례 만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11]

– 학생들의 자기 평가: 솔직한 태도, 열린 눈, 진정성을 가진 토론

– 비판적 이론에 대한 토론: 변화하는 사회를 향한 사회 비평이론 학습

– 봉사학습 교육학과 실천의 장의 연결에 대한 연구

– 매주 강의실 모임에서 활동에 기반을 둔 자료와 반성 정리

– 셋째 주까지 각자 확인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활동 시작

– 활동 중의 좌절과 난관 극복을 포함한 진전 상황을 격주로 보고

– 상호 지원과 창의적인 제안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습

– 최종 보고서의 부분으로서 일지 쓰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지원)

---

10) 이 단계에서는 봉사학습 활동이 힘들고 과정과 결과가 종종 기대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시간 계획, 예산, 프로젝트의 구조를 신경 써야 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해된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

11) 면담에서 프로젝트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기 위해 서로 주고 받아야함을 상호 이해한다.

– 봉사학습 과정 중의 수행활동 중심의 연구 보고서 작성
– 수료식: 샘플 보고서 전시 및 성과 공유

이처럼 미국의 대학에서는 봉사를 학습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봉사학습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과 결과만으로도 교육 철학자와 실천가의 이론에 입문하는 셈이며,[12] 봉사와 학습을 연계한 경험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드러내 보인다.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전남대 특히 인문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봉사의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정규 교과목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 명예학생 프로그램 연합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아이디어 목록도 제공하고 있다.[13] 지역사회 봉사 아이디어 범주로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어린이 · 가족 · 친구, 범죄, 정부, 특별 수요, 예술 · 스포츠, 노인, 행사, 안전, 학교 활동, 홈리스 돕기, 공동체 의식 고양, 환경, 동물 돕기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행사 동안 사진 촬영 혹은 행사 진행자 보조
– 박물관 가이드 혹은 건강 박람회에서 자원봉사
– 지역 여름 캠프에서 상담자로서 자원봉사
– 차이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기획

12) 예를 들어 비고츠키(경험으로부터의 학습, 행함에 의한 학습, 지식은 경험의 변형을 통해 생성, 교육의 본질은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더 잘 이해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듀이(교육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역할 공부), 콜브(학습 사이클 심층 탐구, 경험학습은 충동, 느낌, 열망을 고등의 합목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학습, 경험 학습 과정의 세 부분의 구체적인 경험, 관찰과 성찰, 추상적인 개념과 일반화의 형성으로 구성, 주로 경험에 의해 파생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들에서의 개념의 함의들 시험하기) 등이다.

13) 366 Community Service Ideas. 1~2쪽 참조.

- 지방 비영리 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자원봉사
- 비영리 기관을 위해 웹 페이지 설치 및 관리
- 지식봉사를 위한 수업을 통해 지식 공유
- 지역의 소외계층 위한 활동 (예: 노인들을 위해 생일 카드 만들기)
-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해 축제 기획 및 참여
- 도 · 농 간 개인들의 이해 증진 위해 교환 프로그램 조직하기

그 밖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 해당 자료에 제시되어 있어서,[14]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떠오르는 활동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범주로부터 한국이나 전남대의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봉사와 학습을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이든 또는 주기적이든 단순한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학습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5]

Ⅲ. 경험학습

경험학습은 경험교육이라는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경험교육이란 학습 환경과 내용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고취하는 교사와 학생의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16] 미국의 경험교육 연합회는 경험교육을 '지식을 늘리고, 스킬들을 개발하고, 가치들을 분명하게 하도록, 교육

14) 어린이 · 가족 22, 안전 20, 정부 9, 홈리스 33, 공동체 50, 노인 29, 범죄 12, 학교 41, 특별 수요 15, 환경 56, 동물 22개 등.
15) 최근 미국의 대학에서 많이 개설되고 있는 '봉사학습론'이라는 교과목을 단대 교양 혹은 학과 전공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6) Itin 1999, 91-98 참조.

자들이 학생들을 직적 경험과 집중된 반성에 참여시키는 철학이자 방법론'이라고 정의한다. 경험 학습의 방법에는[17]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현장 기반 학습, 봉사 학습[18] 등이 있다.

경험교육이라는 용어는 원래 존 듀이의 '교육은 경험의 질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경험에서 지속성과 상호작용[19]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듀이는 『*Experience and Education* (1938)』에서 전통적인 교육이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사전 명령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의 경험들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경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0] 듀이에 따르면, 경험 교육은 행동과 반성을 통한 학습을 위한 상황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학생의 역할과 구조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학습 목적을 위해 학생이 적극적인 역할에 실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21]

미국의 대학에서는 외부 탐색을 통한 현장 교육을 위해 기존의 학술적 독해와 글쓰기 과제와 현장 관찰, 봉사 프로젝트, 강의 자료에 대한 열린 토의, 지역민과의 만남 등을 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22] 우수학생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경험 학습 확대와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학생처와 공조하여 마련하여 명예 학생 대상의 경험 학습을 공동체 파트너인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다.[23]

---

17) 문제기반학습: 학습을 내재화하고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발견을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프로젝트기반학습: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수업의 중심 포커스로서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수업 방법이다. 현장기반학습: 범 교과과정의 과목들에서의 개념들을 가르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이용한다. http://en.wikipedia.org/wiki/Experiential_ education에서 "What is experiential education?"부분 참조.

18) 여기서도 봉사와 학습을 연계하는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의 유의미성이 뒷받침된다. 봉사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이나 조직에 의미 있는 봉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학술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봉사에 대한 새로운 스킬 · 지식 · 이해를 체험할 수 있다.

19) 지속성(continuity): 경험이 다른 경험에서 나오고 다른 경험을 이끌고, 본질적으로 개인이 더 배우도록 추진하게 한다는 아이디어; 상호작용(interaction): 경험이 한 개인의 내적 요구나 목표를 충족시킨 경우를 말함.

20) Neil 2005 참조.

21) Fletcher 2005, 7-8 참조.

22) Lempert(2003) ; Boyd(2002) ; Calkins(1991) 등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Experiential _education에서 재인용.

23) Holman 2009, 211-218 참조.

국내에서는 경희대의 사례에서 경험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24] 이 대학의 영예학생 프로그램의 하위에는 '실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이라는 세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팀별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교수 컨설팅을 3회 이상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외봉사, 대외공모전 참여, 글로벌 실천 프로젝트, 전공분야 연구논문 작성 등 구체적인 실천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여 수행한다. 진행은 예비계획서 제출 → 기획(안) 제출 → 1차보고서 제출 → 1차 지원금 배부 → 2차 보고서 제출(2차 지원금 확정) → 최종 보고서 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팀별 실천 프로젝트는 국내 관련기관 탐방 → 해외 관련기관 탐방 →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천적 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실천 프로젝트 시행 지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우수 팀을 포상한다.

홍콩 대학의 ILOP(Intensified Learning Opportunity Programme)에서도 경험학습이 중시되고 있는데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즉, 경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발견하고, 자기 계발을 하는데 있어 장애를 극복하고, 경험을 쌓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창의적으로 기능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25] 이를 위해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의 역할을 탐구하여 배우고 경험할 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기 계발, 해외 인턴십, 멘토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계발 프로그램은 실험적 학습 활동 참여를 통해 자기이해의 고양 및 자신의 인생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모험 캠프[26]에 참여하게 하고 학습계약서[27]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주어진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6~8주 동안 해외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부기관, 기업체를 방문하여 경험 학습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국제 환경에서 서

24) 이하 경희대학교 관련 홈페이지(http://honor.khu.ac.kr) 참조.
25) http://w3.cedars.hku.hk/ilop/programmes_ schedules.php 참조.
26) 자기발견과 팀워크를 위한 도전과 자극을 제공하며, 집단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개발, 적응도 강조한다.
27) 특정 목표와 세부목표들을 가진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반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또한 동료 간의 조언(peer feedback) 할 수 있도록 한다.

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으로써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는 목표를 가진다.[28] 멘토제는 국내외 사회적 · 정치적 브레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학의 연례 멘토제 계획의 일부이며, 모든 참여자에게 한 명의 멘토를 지정하여 매월 만남 후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입생부터 경험학습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Central Florida 대학교[29]의 우수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명예 초년생 경험을 고양하고 대학생활 첫해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높은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30]으로 '신입생 경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1] 이 대학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특히 대규모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고립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이 학생들은 학업 및 캠퍼스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규모가 클수록 초년생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신입생 경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즉, 신입생들은 첫 학기의 '신입생 심포지엄'[32]에 등록한다.[33] 이 프로그램에서 신입생들은 경험 학

28) 워크숍과 강연 시리즈를 병행하여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고양, 해외 인턴십 안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9) 이 대학은 43,000명 대규모 연구 중심 대학이며 신입생의 10-15% 정도가 명예학생이다.

30) 성공적인 초년생 생활을 촉진하는 것이 중도탈락률을 줄이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학문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 대학에서의 지속성과 성공에 기여
- 고교에서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옮기기 위해 신입생들은 학문적 · 사회적 적응 필요
- 학문적 사회적 영역에서 통합이 부족하면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개연성 증가
- 학문적 · 사회적 통합의 효과는 특히 대학 첫 해 동안에 첨예하게 나타남.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저항력 약화는 첫 해 동안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마모율은 해마다 50%씩 감소, 전체 신입생 중도탈락자 중 절반은 첫 학기 첫 6주에 나옴,

31) Wang 2005, 93~102 참조.

32) 명예 프로그램 경험을 위한 과정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대학의 최고 교수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문세계, 창의성, 학습을 위한 열정 등에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일련의 강사들이 자기 연구의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33)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한 명의 팀 리더가 이끄는 19-20명의 팀에서 소속감과 명예학생의 정체성 형성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배운다. 팀들의 중요한 기능은 발표된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해 집단토론을 하는 것이며, 이 집단 토론은 심포지엄 직후 미리 정해진 캠퍼스의 다양한

습을 통해 학문적 · 지적 능력 개발,[34] 사회적 관계 형성,[35] 자기 정체성 개발,[36] 개인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 유지,[37] 통합된 생활철학 개발[38] 등의 목표를 성취한다. Butler 대학교[39]의 경험 학습 프로그램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학의 우수학생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개발과 혁신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40] 경험학습을 위한 명예 강좌 개발 배경은 대규모 대학 기념식에서 학생이나 커리큘럼에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2005년 대학 1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 홈페이지나 지방신문에서는 주로 교수진, 직원, 동문 중심의 행사들만 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 명예 강좌를 개설하는 데 학생을 참여시킨 것이다.[41] 이처럼 강좌 계획 단계에서 협조자로 학생을 포함시킨 것은 커리큘럼 개발에서 혁신적인 개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까닭은 명예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거나 제한된 토픽에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 각 명예 강좌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과목 선정, 강좌 설계, 강좌 개발, 혹은 강좌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에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준비에 직접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좌가 되었다. 수업 활동은 한 학기 동안 캠퍼스

장소에서 개최된다.

34) 적극적인 경청으로 다양한 연구 주제와 학문 간 사고 이해를 증진시킨다.

35)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내기의 두려움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신뢰와 의사소통 능력 개발한다.

36) 명예학생 정체감 증진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예대학은 상아탑 안에서 고립된 엘리트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대학의 학문 공동체에 중심이 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37) 성공적인 학생의 롤 모델로 교내외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강조한다.

38) 신입생은 청소년으로서 대학에 들어오고 성숙한 청년으로서 졸업하게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 보다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능력과 관심이 자기 삶의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39)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사립 대학교.

40) Wilson et al. 2007, 69~75 참조.

41) 강좌의 구조는 일부러 미리 정하지 않고 교수진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하였다. 또한 기념식에 학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체 명예학생들을 이 특별강좌에 초청하였으며, 4명의 학생을 선출하여 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여기서 특별 강좌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탐방 및 연속 초청 강연[42], 과거와 현재 동문의 만남 프로젝트[43], 마지막 4주의 집단 프로젝트[44]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45] 그밖에 예상 못한 다른 성과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 대학 행정가들이 현재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학부생 행사에 행정가들이 초대 되었던 것은 드물었다 – 행정가와 학생 상호작용을 위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강좌의 모든 손님(교수, 직원, 보직자, 동문, 학부모, 총장 등)은 이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실상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직자들은 현재의 학생들이 대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이 패러다임을 다른 강좌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으며, 매년 한 강좌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대학 차원의 행사가 열릴 때 자기 대학을 하나의 텍스트로 이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의 역사 및 졸업 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감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을 한 강좌에서 텍스트로 이용하는 장점은 그러한 강좌 준비에 학생의 참여, 수강신청에 있어 학생들의 흥미, 학생들이 강좌 재료의 결정자이므로 수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전남대의 경우 60주년을 기념하여 전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산출한다면, 미래의 대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2) 대학의 역사적 배경과 관점에서 출발하여 보다 세부적인 토론; 각 단과 대학의 역사, 교수 직원 평가 방법 프레젠테이션; 동문들의 관점; 과거 전체로서 대학의 노정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에 대한 총장의 인식 등.

43) 동문회 사무실 협조를 받아 동문들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44) 2~3명으로 구성하여, 학 역사에서 관심 분야 선택하고, 발표하며, 대학을 빛낸 인물 등의 외부 연사 초청하였다.

45) 학생들 스스로 모교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대해 놀랐으며, 캠퍼스 내외 투어, 연사초청강연, 자신들의 수업 프로젝트들 등이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경험을 통해 변화되었고 흡사 대학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Ⅳ. 협력학습

경험교육을 위해 우선 강의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게임,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이야기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46] 이 경우, 지식은 더 이상 단순히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다. 지식은 실생활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되고, 교사는 단순히 글로 작성된 단어의 전달자가 아니라 경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교육을 위해 전제되는 것은 모든 학습자가 같지 않으며, 학습자들은 각자 고유한 학습 스타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습 촉진자로서 서로 다른 학습상황에서 협력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때 교수자는 강의실이 이러한 협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개별 및 집단 피드백 제공자 또 문제 조정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생과 교수가 서로 간에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경험 학습의 방법 중에는 활동 중심 학습이 있는데, 이는 집단의 모든 참여자들이 진술된 세부목표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 중심의 학습자들 간의 협력학습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팀 워크]이 중시된다. 비고츠키의 사회발달 이론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와 대화의 스킬들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역할이 증대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 전략들은 학생 중심 학습에 있어 성공의 관건이며,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에 참여할 때 고등 수준의 사고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심오한 수준의 이해를 위해 정보를 종합할 때 학생 사이의 협력학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듣기, 다른 사람의 강점 인정하기, 난관 극복을 위해 상호 지원하기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등의 스킬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는 집단 능력 개발을 위해 '모험 교육(adventure education)'을 청소년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47]

---

46) 이하 http://en.wikipedia.org/wiki/ Experiential_education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협력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체학습의 사례가 있는데, 경희대 영예학생 프로그램의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48]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발된 명예학생 전원이 3주간의 기숙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비용은 전액이 지원된다. 대체로 여름방학(7월 하순~8월 초순)에 운영되며, 한국어 읽기 · 쓰기 · 토론 · 프레젠테이션 기법 연습 등의 기초역량 강화, 국제적 수준의 리더십을 위한 영어 토론 · 프레젠테이션,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과 감성 증진, 명사 특강, 한국어 및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와 토론대회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 프로그램의 평가 요소는 학습 평가, 생활 평가, 과정 이수 여부 등이다.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참가 중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포기할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전공 연수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등 다른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 받는다.

미국 Mississippi 여자 대학교(MUW)의 생활-학습 공동체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에서는 교무처와 학생처가 공유의 의식 없이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조 프로젝트 개시가 필요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49] 이를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더불어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학습의 프로그램으로 1학년 1학기에 생활-학습 공동체 실험[50]을 시작한다. '신입생 세미나'라는 강좌를 통해 2주간 기숙 생활을 함께 하면서 단체학습을 실행하는 것이다. 학습 후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평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는 그 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작은 기숙사 방에서 보다 큰 기숙사 홀로 옮겨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3학년에는 참여 학생 선발을 위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에세이를 쓰고 인터뷰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학생 만족도 설문, 학생들의 학문

47) http://en.wikipedia.org/wiki/Experiential_education 참조.
48) 이하 http://honor.khu.ac.kr 참조.
49) Daffron & Holland 2009, 197-209 참조.
50) 이는 우수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출발 지점이자 새로운 실험을 위한 실험실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적 · 사회적 참여 정도, 1~2학년 학적 유지 비율 조사, 명예학생 중 생활 공동체 참여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비교 등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실험 시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51] 생활-학습 공동체는 학습 혁신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고 명예 프로그램의 목표 성과 중의 하나인 평생학습 촉진을 성취한 셈이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LaGuardia Community College[52]의 공동체 의식 촉진을 위한 명예학생 커리큘럼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53]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우수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과 교수진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커리큘럼이 종전에는 교양 교육(사회과학과 인문학 중심, 자연과학이나 경영학은 제외) 위주로 운영되었는데, 관련 학과들이 '어떻게 하면 상호 기여할 수 있을까', '대화에 의한 캠퍼스 협상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이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대학 전체 명예학생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합의하였다.[54] 이로써 '네트워크로서 명예학생 공동체'를 위해 명예학생 강의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네트워크가 이뤄진 공동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명예학생 프로그램과 다른 학과들을 네트워킹하고 콜로키움을 운영하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외부 연설자와 콜로키움을 통한 공동 교과과정 운영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Miami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명예학생 대사' 프로그램도 봉사 스킬, 다양한 경험,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55] 이 프

51) 실험 과정에서 공동체 미 참여 학생들과의 괴리감(혜택 차별),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문제(교무처; 커리큘럼 변경, 시간 필요, 의견 차이, 학생처; 기숙사 여력 부족, 개조 등) 등이 나타났다. 한 학기 실험으로 나중에 2년 기숙 명예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켰다.

52) 커뮤니티 칼리지: 각 주의 제정으로 운영되는 2년제 대학이며 미국전역에 1000개 이상 있다. 이런 유형의 대학의 목적은 저렴하게 학사과정을 마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2년 수학 후 4년대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53) Koh et al. 2009, 161~170 참조.

54) 많은 협의와 20회 이상의 수정 후 2007년 교과과정이 교학위원회와 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로그램의 구조 및 철학은 지식이란 다양한 경험과 관점의 바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조에서 개인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는 점이다. 이 강좌의 내용 중 하나는 '학생 모집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학생 모집을 위해 명예 프로그램의 전문 인턴으로서 학생들이 직원들과 공조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역할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은 다양하며, 팀 내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 모집 활동의 축적을 위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집 과정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참여를 통해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을 통해 리더십을 고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협력학습 프로그램은 이전 학습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여 파트너 학습의 모델 역할을 하며, 탐구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 브랜드 육성(졸업장 표시 및 별도 수료증 수여), 공동체 네트워킹, 대학 및 명예 프로그램의 대내외적 홍보의 성과를 겨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범 인재로서 학생이 고등학교 교사나 학부모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교 졸업생의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료 · 교수 · 직원과의 긴밀한 공조 및 심층적인 비판적 성찰을 통한 개인적 · 학문적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에서도 협력학습을 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학습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총장명예학생' 교육과정에서 시도할 수 있겠다.

Ⅴ.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전남대 학생들을 위한 -특히 인문학도 중심-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55) Burton et al. 2009, 171~188 참조.

두고 국내외 대학의 여러 학습방법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봉사와 학습의 연계, 경험을 통한 학습,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력 학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봉사학습과 관련하여, 봉사 및 봉사학습의 정의, 경희대의 사회공헌 실천 프로젝트, 홍콩대의 봉사학습 및 자원봉사, 미국 트리니티 기독 대학교의 범 교과 봉사학습 프로젝트, 미국 우수학생 프로그램 연합회의 지역사회 봉사 아이디어 등을 알아보았다. 경험학습에 대해서는 경험교육의 정의, 경희대의 실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홍콩 대학의 경험학습 프로그램,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신입생 경험, 버틀러 대학교의 150주년 기념 강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협력학습의 경우, 생활과 학습을 통한 단체학습을 위한 경희대의 몰입형 기숙교육, 미국 미시시피 여자 대학교의 생활-학습 공동체,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대학의 네트워크로서 명예학생 공동체, 마이애미 대학교의 명예학생 대사 등을 알아보았다.

봉사학습 · 경험학습 · 협력학습은 각기 독립적인 학습방식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는 여기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봉사 정신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 효과의 한계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공동체를 이해하고 상호 공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협력학습의 의미는 지대할 것이다. 또한 현대 교육에서 요구되는 학문 통섭형 또는 학문 횡단형 강의를 위해서도 이러한 강의 방식의 활용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중심의 영역에서 이러한 학습방법의 활용을 위해 또 정규 교과목 개발이나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에서 새로운 모색을 위해 이러한 학습방식이 시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손동현 (2010).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 19-27.

366 Community Service Idea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http://lancaster.unl.edu/4h/CommunityServiceIdeas.pdf

Burton, K. et al. (2009). Honors Ambassadors: A Framework for Enhancing Student and Program Development.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Vol 5, 171-188. (Online Archive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82&context=nchchip)

Daffron, E. & Holland, Ch. J. (2009). Honors Living-Learning Communities: A Model of Success and Collaboration.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Vol 5, 197-209.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85&context=nchchip

Fletcher, A. (2005) Meaningful student involvement: Students as partners in school change. Olympia, WA: CommonAction. http://www.soundout.org/MSIGuide.pdf

Holman, D. K. et al. (2009). Honoring Experiential Education.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Vol 5, 211-218.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82&context=nchchip

Itin, C. M. (1999). Reasserting the Philosophy of Experiential Education as a Vehicle for Change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22(2), 91-98.

Koh, K. et al. (2009). Networking an Honors Community out of Fragmentation.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Vol 5, 161-170.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94&context=nchchip
Neil, J. (2005) "John Dewey, the Modern Father of Experiential Education"
http://wilderdom.com/experiential/ExperientialDewey.html

Powell, R. L. (2008). Honored to be a Part of Service-Learning.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Vol 4, 97-109.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71&context=nchchip
Wang, A. et al. (2005). Team Leaders and the Honors Freshman-Year Experience1.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Honors in Practice. Honors in Practice Vol. 1, 93-102.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8&context=nchchip
Wilson, An. M. et al. (2007). Teaching an Honors Course Tied to a Large University Event. Journal of the National Collegiate Honors Council (Online Archiv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Honors in Practice Vol 3, 69-75.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59&context=nchchip
http://en.wikipedia.org/wiki/Experiential_education
http://en.wikipedia.org/wiki/Service-learning
http://honor.khu.ac.kr
http://w3.cedars.hku.hk/ilop/programmes_schedules.php

〈온라인 문헌 출처 확인은 2012년 7월 10일자 임.〉

〈Abstract〉

Approaches to Collegiate Learning: Service-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Cooperative Learning

Kim, Soon-im · Min, Chun-gi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investigate some educational approaches for developing new learning circumstances in which students can broaden and deepen their intellectual horizon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three main approaches are included: Service-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Cooperative Learning.

With regard to the Service-Learning, the term was defined and it is followed to by seeing some sample cases which are developed and operating at the national and overseas universities, e.g. *Social Commitment Practice Project* at the Gyeong-Hue University in Korean, *Service-Learning and Volunteering* at the Hong-Kong University in Hong Kong, and *Cross-curricula Service- Learning Project* at Trinity Christian College in the USA ect. For discussing Experiential Learning, the definition of the term was revised and then some cases were mentioned, e.g.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Practice Project* at Gyeong-Hue, *Experience-Learning Program* in Hong-Kong, and *Freshman Experience*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etc. To explore the Cooperative Learning, we

examined some samples: *Residential Immersion Education* at the Gyeong-Hue, *Living- Learning Community* at the Mississippi University for Women, *Honors Students Community as Network* at the Laguardia Community College, and *Ambassador of Honors Students* at the Miami University.

Three Learning mentioned above are inter-related rather than independent each other. That is why the contents were partially overlapped. Learning in the classroom can be supplemented by learning through experiences. Service-Leaning and Cooperative Learning are regarded as a crucial feature of the graduates in the modern society.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develop and provide a curriculum in which students can improve the important competences for living in the global world.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2년 7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